

## 도박, 사행산업의 번성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고찰\*

이장형 (백석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 II. 사행산업과 불법도박 산업 현황

### III.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는 도박, 사행산업의 번성 원인

1.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은 탐심
2. 팽배한 물질주의(맘모니즘)
3. 팽배한 포스트모던 문화의 부정적인 영향

### IV. 도박, 사행산업 대안 및 해결방안

1. 사행산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문제점 검토
2. 맘모니즘 일소와 성실한 근로생활
3. 기독교적인 놀이와 여가문화 형성
4. 부의 사회 환원을 위한 노력

### V. 나가는 말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백석대학교 대학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 ABSTRACT •

---

A Study of Gambling Industry based on  
the Christian Ethical Perspective

Lee, Jang-Hyung

This paper elaborates the main point that the complexity of abuses in gambling industry cannot be dissolved simply by enlightenment movements or national policies for morality recovery, but that it should be dealt with the complicate problems of people's internal aspects. The government needs to prevent from the excessive urbanization, laying the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deployment for the balancing development of the regions, and also to commit to the ethical and pedagogical diffusion of the multi-dimensional approaches. Moreover, it needs to be stressed that, before the evil influence of gambling spreads more actively, it should be actively and specifically discussed at the level of Christian morals. In it, the Christian communities must produce proper policies or ideas, eagerly joining in the hot issues of the society, public or private. The Christianity should inspire the believers to live integral lives, so that they can cast the so-called Mammonism away and continually work for creating sound cultures in their lives. Even though the circumstances and surroundings of human societies are more and more contaminated by all different themes of pains, sufferings, and injustice, nevertheless there still lies in the basement of human nature full of expectations and desires of rest and play. Now the church must have an active interest in these cultural issues.

**Key words:** Gambling Industry, Urbanization, Social Evil, Mammonism, Christian Ethics

---

## I. 들어가는 말

도박은 노인들의 시간 보내는 푼돈 도박에서부터 사업체를 도산에 빠뜨릴 만큼 거액이 오가고 파장도 크게 문제시되는 도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띤다. 최근에도 모(某) 프로야구단 선수들이 마카오 카지노에서 거액의 도박을 한 것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회통념상 놀이로 간주할 수 있는 도박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액의 도박, 합법적 범주가 아닌 불법도박, 취미나 습관을 넘어선 도박이 있다. 도박 중독은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서특필되고 이목이 집중되기 마련이다.

국어사전에서는 도박을 “돈이나 재물을 걸고 서로 따먹기를 다투는 짓, 요행수를 바라고 위험한 일이나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일에 손을 대는 일”<sup>1)</sup>이라고 정의한다. 도박이 유행하는 사회는 결코 정상적인 사회도, 바람직한 사회도 아니다. 도박행위 자체는 윤리적 판단에 앞서서 다양한 파급효과를 낳는 사회 문화적 죄악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2009년 기준 약 78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총 GDP의 7.3%로 전체 교육예산 53조원의 약 1.5배에 해당하며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 20조 천억 원의 3.9배에 해당한다.

도박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자살과의 연관성이다. 높은 자살률은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며 현재 OECD국가들 중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높은 자살률의 원인에는 경제침체, 치열한 교육환경, 노인빈곤층 증가 등 복합적인 다양한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지만, 도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sup>2)</sup> 한국 내에서도 지역 평균보

1) 민중서림 편집국 편, 『엣센스 국어사전』(서울: 민중서림, 2004), 608.

다 현저히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 태백, 정선 등이 속해 있는 강원도 지역이었다. 이 지역들을 말할 때면 일반적으로 광산이나 카지노를 연상하게 되는데, 도박 환경과 자살률이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강원도 자살자 수 7년(2007-2013) 동안 평균은 연 618.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강원도 자살률 십만 명 당 7년 평균은 연 40.8명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12명 이상이나 높은 상황이다. 강원도의 연령표준화 자살률<sup>3)</sup> 십만 명 당 7년 평균은 연 34.6명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고 정선군 연령표준화 자살률 십만 명 당 7년 평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연 46.2명으로 나타났다.<sup>4)</sup>

본 논문은 태백지역의 ‘도박문제를 걱정하는 성직자 모임’으로부터 강연을 부탁받은 것을 계기로 작성한 논문이다.<sup>5)</sup> 도박과 관련한 신학적 연구는 지금까지 기독교 상담심리,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가 일부 발표되었을 뿐 기독교윤리적 관점에서 조명한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사행산업, 불법도박의 현황을 살펴보고 기독교윤리적 관점을 논한 후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사행산업과 불법도박 산업 현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불법 도박시장 규모

- 
- 2) 본 논문 〈표1〉 ‘도박에 의한 사회적 부작용’의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 또는 시도’ 칸을 참고할 것.
  - 3) 편차가 큰 연령분포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 4) 박예란 외, 『도박으로 인한 자살실태조사(강원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14, 14.
  - 5) 태백지역의 도박문제를 걱정하는 성직자모임은 2005년 시작되어 2015년이 창립10주년이다. 대표는 최준만 목사(태백연동교회), 사무국장 김석기 목사(사북 충만한교회)이다. 창립10주년 행사에서 강연하고 현장의 담론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성직자모임에 감사를 표한다.

는 작게는 9조원에서 많게는 26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5년 국방예산의 70%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도박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009년도에 78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sup>6)</sup>

현 우리사회에서 도박은 합법적 근거를 갖고 운영되는 사행산업과 법에 저촉되는 불법도박으로 대별할 수 있다. 불법 도박은 상당부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계내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며, 그 규모는 합법적인 사행산업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sup>7)</sup> 또한 합법적 사행산업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편법 내지는 탈법적인 일들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발생할 수도 있다.

우선, 사행산업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현재 카지노, 경마, 경륜 등 많이 알려진 도박 뿐 아니라 소싸움 등도 합법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사행산업은 소싸움이라는 다소 지엽적인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10년 사이에 이용자수와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다. 10년 동안의 사행산업과 불법도박의 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카지노의 영업장은 2005년 14개에서 2014년 17개, 매출액은 12,437억원(강원랜드 8,091억원)에서 27,992억원(강원랜드 14,220억원), 이용객 2,456천명(강원랜드 1,882천명)에서 5,969천명(강원랜드 3,007천명)으로 증가하였음.
- 경마의 영업장은 2005년 35개(장외 32개)에서 2014년 33개(장외 30개), 매출액은 51,548억원에서 76,464억원, 이용객 16,185천명에서 15,295천명으로 증가하였음.
- 경륜의 영업장은 2005년 20개(장외 17개)에서 2014년 23개(20개), 매출액은

6) 「조선일보」, 2015년 10월 24일, 1면.

7) 최근 조선일보에서 사행산업, 불법도박에 대한 심층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도박의 경우 합법 스포츠 토토는 2조 6천억 원임에 비해 불법 스포츠 토토는 약 3배인 7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선일보」, 2015년 10월 27일.

- 17,555억원에서 22,019억원, 이용객 5,459천명에서 5,289천명으로 증가하였음.
- 경정의 영업장은 2005년 12개(장외 11개)에서 2014년 18개(장외 17개), 매출액은 4,127억원에서 6,808억원, 이용객 1,909천명에서 2,385천명으로 증가하였음.
- 복권은 2005년 38종에서 2014년 12종으로 줄었으며, 매출액은 28,438억원에서 32,827억원으로 증가하였음.
- 체육진흥투표권은 2005년 10종에서 2014년 22종으로 늘었으며, 매출액은 4,573억원에서 32,813억원으로 증가하였음.
- 소싸움은 2011년 1개의 영업장으로 시작하여 매출액 17억원, 이용객 92천명에서 2014년 매출액 10억원, 이용객 34천명으로 감소하였음.<sup>8)</sup>

〈표 1〉 도박에 의한 사회적 부작용<sup>9)</sup>

구분	사례수 (명)	부작용 경험	부작용 종류별					
			술이나 약물 오남용	언어적, 신체적 폭력 행사	이혼 위기에 처하거나 이혼 경험 (n=15,617)	실직 위기나 하던 일을 그만 둠	자살을 심각하 게 생각 또는 시도	범법 행위 시도
전체	20,000	1.3	0.9	0.9	0.9	0.5	0.4	0.4
성별	남자	9,797	2.3	1.5	1.6	0.8	0.6	0.6
	여자	10,203	0.3	0.3	0.3	0.3	0.3	0.3
연령 별	20대	3,343	0.5	0.4	0.4	0.2	0.2	0.2
	30대	3,934	1.5	1.1	1.0	0.6	0.5	0.4
	40대	4,325	1.7	1.0	1.2	0.7	0.5	0.5
	50대	3,906	1.9	1.3	1.3	0.8	0.5	0.5
	60대 이상	4,492	0.8	0.6	0.6	0.4	0.4	0.4

8) 이 통계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http://www.ngcc.go.kr/>(접속: 2015년 10월 28일 0시 31분)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9) “사행산업 이용실태 보고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도박관리문제센터, 2014, 3.

사행산업은 다양한 부작용을 낳게 된다. 도박에 의한 사회적 부작용으로는 술, 약물 오남용, 폭력 등 다양한 범법행위, 가정파탄, 실직, 자살시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런 고질화 된 사회문제들을 결코 쉽게 해결하기는 어렵다.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사행산업이 전개되고 있다. 가장 오래된 전통이라 할 수 있는 경마를 비롯해 경정, 경륜, 카지노 등 다양한 종류와 규모의 사행산업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전인적으로 해를 끼치는 독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행산업이 존립하는 것은 그 배경에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당후원금을 가장 많이 낸 단체가 카지노 업체라는 사실은 이런 유착관계를 단적으로 증명해준다.<sup>10)</sup> 우리나라의 경우 오래된 사행산업인 경마는 한국마사회<sup>11)</sup>라는 공사형태의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마사회에서는 소재지 과천시 등 지자체에게 상당한 세수를 제공하고 있다.

폐광지역인 태백 등에 문을 연 합법화된 내국인 출입 카지노 등 사행산업이 가져오는 다양한 폐해에 대해서는 가끔씩 언론에 문제로 제기되기도 하고, 범국가적인 고충거리로 부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번 허용된 사행산업을 철폐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오히려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지금도 사행산업은 증설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진보성향의 비교적 서민 지향적인 성품을 지닌 박원순 서울시장의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카지노

10) 라스베이거스 샌즈는 14년 동안 총 6940만 달러(787억 원)을 후원금으로 냈다. 특히 보수적인 공화당에만 이 돈을 기부했다. 민주당에 한 푼도 주지 않은 기업은 이곳뿐이었다. 「조선일보」, 2015년 10월 29일.

11) 경마는 한국마사회법에 근거한 한국마사회가 운영을 맡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매출 규모는 2015년 경마 매출 77,065억 원 경마 외 수익 829억 원을 제시하고 있다. 경마장 뿐 아니라 장외 발매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http://www.kra.co.kr/>(접속: 2015년 10월 28일 0시 10분)

설치를 제안 받고 귀가 솔깃했다는 언급을 한 적도 있다.<sup>12)</sup> 사회적으로 카지노 등 도박, 사행산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상당히 다양한 것이 사실이며 특히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아전인수(我田引水) 식의 유리한 견해를 표출하게 된다.

이 논문은 기독교윤리적 차원에서 도박과 관련된 제(諸) 문제의 심각성을 고민해보는 과정을 담는다. 물론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폐해에 대해서 정치경제적, 관광산업적, 사회복지적, 정신의과학적, 심리치료적 접근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볼 수는 있다. 이 논문에서는 당장 현실성 있는 제안보다는 도박이 번성하는 사회의 저변 문제들을 이론적으로 다루는 거대담론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공공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공공신학(public theology)의 책임을 통감하고 기독교윤리학 차원에서 실천적 노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III.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는 도박, 사행산업의 번성 원인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도박에 대해 직접적으로 주제를 논한 본문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내용상 이 문제를 함축적으로 담는 구절들은 한결같이 부정한 물질, 재산, 돈과 관련된 경고와 교훈점들을 시사해준다.

#### 1.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은 탐심

도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마음에 탐심을 불어넣어주는 달콤한 매력을 가졌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

12)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샌즈그룹 회장이 세 번이나 나를 찾아와 ‘10조 원을 투자할 테니 카지노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솔직히 구미가 당겼지만 ‘시장권한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15년 10월 28일.

에는 무언가 배팅을 하려는 심리적 욕구가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 호기심으로 시도해보는 단회성 도박도 문제지만, 한계선을 긋지 못하고 도박에 중독 증세를 보인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청소년 세계에서 큰 문제로 부각되는 이슈들 중 하나가 인터넷 게임중독이다. 이 문제도 성인이 되면 차츰 도박으로 확대 전이되어 도박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게임일몰제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넓은 의미로 볼 때 도박은 탐심 그리고 불의한 이득(unjust gain)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내면의 것이 탐심이라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도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정죄했을 정도이다. 탐심은 성경 전체에 타락의 대명사로 언급되고 있으며 자신을 위하여 어떤 것을 소유하려 하거나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욱 많은 것을 차지하려는 욕망을 말한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경계하여 욕심을 품지 말 것을 교훈했다. ‘욕심’을 뜻하는 원어 ‘에피쉬미아’의 전치사 ‘에피’는 일정 한계선을 넘어선다는 ‘beyond’의 의미를 담는다. 즉 더욱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을 경계해야 된다는 의미이다. 욕망의 대상은 신명기 5장 21절,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 증거 하듯이 물질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내나 종들까지도 포함된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탈취하는 것은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기업을 빼앗는 행위가 된다.<sup>13)</sup>

신약성경에서는 탐심이 하나님께 대한 참 경배와 신앙에 방해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사람의 재물이 있는 곳에 그의 마음(heart)도 있으며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단언하셨다.<sup>14)</sup> 탐욕스러운 사람은 그 감추어 놓은 돈을

13) cf. 미가 2:2; 로마서 7:7; 13:9.

바라보며 자기 성취감에 사로잡혀 자만하게 된다. 그는 성경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돈을 쌓아두기 위해서 저장소를 넓힐 계획을 세운다.<sup>14)</sup> 사도들이 구제사역에 힘쓸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불우한 이웃을 위해 재산을 헌납하기로 했다가 탐심이 발동했다. 부부가 그 일부를 숨겼을 때 성령을 속인 죄로 정죄되어 일벌백계의 심판을 받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사도행전 5:1-11).

성경의 전반적 메시지는 물질과 부에 대한 경고가 훨씬 많다고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부를 쌓지 말고 천국에 쌓으라고 교훈하셨으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경고하셨다(마태복음 6:19-20). 더구나 이 가르침은 구약이나 초대교회의 상황이 물질적 풍요가 보편적이지 않았던 시기였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물질 문제와 신앙 문제는 어떤 차원에서든 불가분리의 밀접한 상관성을 갖는다는 교훈을 준다.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가르쳤다(디모데전서 6:10). 또한 성경은 가난에 대해, 자립적인 개인주의 사상이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를 담고 있다. 개인의 게으름이 가난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잠언 10:4), 동시에 사회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값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는 야고보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야고보서 5:4).

## 2. 팽배한 물질주의(맘모니즘)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다(마태복음 6:24). 여기에서의 재물은 단순한 돈, 화폐, 재물이라기보다는 ‘맘몬’의

14) cf. 마가복음 7:22; 누가복음 12:15; 로마서 1:29.

15) 누가복음 12:15-20.

차원을 의미한다. 가나안의 토속신으로 자리 잡은 맘몬, 이 맘몬은 돈을 숭배하고 신뢰하는 영적인 태도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화폐나 상거래 행위, 재물 자체가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신격화된 재물(맘몬)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따른 것이 공존할 수 없다는 점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기 때문이다.

물질 소유에 관한 문제는 다양한 논란을 야기하는 민감한 논제이기도 하다. 일부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무소유를 주장해서도 안 되며 물질을 부정하다고 보아서도 안 된다. 다만 소유 자체 보다는 소유의 방식과 태도, 구체적으로는 소유하게 되는 과정과 같은 도덕적 정당성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물질 자체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결코 부정하거나 악한 것이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했다. 물질은 부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의 방편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전도서 10장 19절에서 솔로몬은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고 돈은 범사에 이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약속하신 복에는 인복(人福)과 아울러 물질의 복도 동반되었다. 예언자 전승에서 부자들을 향한 경고는 재물을 남용하거나 악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 내려진 것이었다. 또한 재물의 유무는 양면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때도 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복으로 내리시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가난이 초래될 때도 있기 때문이다.<sup>16)</sup> 이렇듯 성경에서는 부와 물질 그 자체를 악으로 보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편으로 종종 풍족한 물질을 주시는 모습도 볼 수 있다.<sup>17)</sup> 성경의 가르침에는 부와 재물의 유용함을 인정하고 있으

16) 창세기 26:3; 신명기 28:15-24; 시편 109:10-11; 잠언 10:4, 22; 욥기 42:10.

며, 예수님께서서는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전토’(田土)라는 구체적인 재산을 예로 드셨다.<sup>17)</sup> 예수님께서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필요한 포도주를 공급하시기도 했다(요한복음 2:1-11).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족하는 마음을 상실한 채 탐욕의 노예가 되어 물질주의에 함몰되고 있다. 교회와 신학까지도 잠식시킨 이 무서운 사조가 많은 이들을 탐욕과 무질서를 부추기는 도박의 세계에 빠져들게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위험한 현상이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허상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것이다. 물질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코 도박, 또는 도박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윌리엄 슈바이커(William Schweiker)는 현대사회를 가리켜 실천적 무신론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대사회의 힘이 갖는 윤리적 위험성을 지적했는데,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인 능력이 전통적인 힘인 정치력보다도 앞선다고 했다. 그는 포스트모던의 사회에서는 선에 대한 고백이 상실되고 있으며, 선의 실재를 부정하고 인간의 힘이 삶을 가장 의미 있고 목적이 가득한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가장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로 여겨져 왔던 도덕적 선이 논의의 초점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슈바이커는 이러한 최근의 위협을 반실재론(antirealism)이라고 칭하면서, 윤리가 단지 인간의 발명이며 사회적 구성물에 불과하다는 지

17)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여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고”(시편 112:1-3)

18)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재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박해를 견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마가복음 10:29-30)

적이 설득력을 얻는 부조리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슈바이커는 행위와 행위자의 연관 관계에 대한 논의를 통합(integration)과 통전성(integrity)이란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다.<sup>19)</sup>

### 3. 팽배한 포스트모던 문화의 부정적인 영향

기독교 정신에 기초를 둔 영국에서는 이미 한 세기 전인 1906년 초에 도박규제법을 선포하여 시행하였다.

영국의 경우 투기억제 법률은 1906년에 제정된 「거리 투기 금지법령」에 명시된 바 있다. 그 법령의 목적은 거리와 공공연한 장소에서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마권영업, 투기, 노름을 목적으로 거리에 모여 빈둥거리는 것 등이 위법에 해당한다. 1912년의 「투기와 도박 규제 법령」에서는 도박을 위한 모든 광고 및 신문과 그 밖의 출판물에 있는 상금타기 놀이를 억제하도록 제안되어 있다. 그리고 축구 쿠폰과 도박경쟁의 수단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도록 자극하는 모든 것을 억제하도록 제안하였다고 한다.<sup>20)</sup>

그러나 포스트모던 문화의 부정적인 영향은 불과 한 세기 전의 법도, 문화도, 규제도 초월하여 도박규제를 진부한 산물로 간주하게 할 정도로 사람들의 도덕성을 마비시켜놓았다. 포스트모던 문화의 특징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지만 모든 것들을 상대화하여 절대가치 그 자체를 부정한다. 특히 일정한 삶의 목적 보다는 '재미'와 '흥미'를 중요시 한다. 이런 포스트모던 문화의 특징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19) William Schweiker, 문시영 역, 『책임윤리란 무엇인가』(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15. '한국 독자를 위한 저자의 설명' 참조.

20)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편, 『기독교대백과사전(제4권)』(서울: 기독교문사, 1993), 364. '도박' 항목.

빠지게 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근대성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합리성이었다. 즉 이성에 부합하면 진리로서의 타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계몽주의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치 및 행위의 판단 기준이 완전하게 이성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근대성을 논할 때의 가장 중요한 기준도 이성의 작용으로 나타난 ‘합리성’이었다. 즉 이성에 부합하면 진리로서의 타당성을 가졌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은 반토대주의(anti-foundationalism)의 성격을 갖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는 합리성과 자유를 기본 원리로 하는 계몽주의적 단계를 온전하게 거쳤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포스트모더니즘으로만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 대한 반작용적인 측면과 그 단절적인 측면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서로를 대비하면서 현대사회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sup>21)</sup>

성경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하여 분명히 삶의 기회와 목적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전도서 3:1), 인생을 진지하게 살려보려는 자는 진지하게 목적의식을 갖기 마련이다. 현대 사회의 포스트모던적인 경향이 디오지니스 알렌(Diognes Allen)이 간파한 것처럼 지극히 제한적이며 협소한 실증주의와 객관주의의 압박에서 기독교를 해방시킨 측면도 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은 성경에 대한 해석 및 교리가 계시에 근거해 있다는 점을 들어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선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등장하면서 기독교 신앙과 신학에서의 진술들이

21) 헤센(Ihab Hassan)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란 글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을 모더니즘과 대비시켜서 35개의 단어로 설명한 바가 있다. 그 중 몇 가지를 대비해서 들어보면 목적(purpose)-놀이(play), 구상(design)-기회(chance), 대상(object)-과정(process), 거리(distance)-참여(participation), 경계(boundary)-교류(intertext), 선택(selection)-조합(combination), 깊이(depth)-표면(surface), 초월(transcendence)-내재(immanence) 등이 있다. Ihab Hassan, “The Culture of Postmodernism,” *Theory Culture, and Society*, V. 2. 1985, 123 - 24.

그 정당성을 위협받고 있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단일성을 부정하고 윤리적 판단조차 무너뜨리는 위험성을 지녔다. 우리는 성경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경고했다.

서양문화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인간관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로 모든 인간에게는 도덕적 양심이 부여되었다는 창조론적 신앙에 기초되어 있다. 포스트모던적인 정보화 시대는 근본적인 면에서 위험스런 전환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관점들이 변경되어가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과학은 과학을 실천하는 집단의 실천이며, 종교는 특정한 종교 집단의 실천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이런 면에서 종교적으로 중요한 슬어인 ‘믿는다’는 고백에 대해 단순한 정서적 만족의 지속을 의미할 뿐이라고 절하시키며,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권위를 갖고 있던 계시로서의 텍스트(text)들은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고 주장한다. 처음에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였던 포스트모던적 문화는 무목적성과 상실이라는 위험한 모습으로 도리어 현대인들을 위협하고 있다. 기독교 신앙은 포스트모던적인 현대사상과 문화의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할 수 있어야 한다.

#### IV. 도박, 사행산업 대안 및 해결방안

##### 1. 사행산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문제점 검토

현재 사행산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관장하는 정부 기관은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sup>22)</sup>이다. 이 기관은 아래의 내용들을 주요사업으로 제시하고

2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http://www.ngcc.go.kr/>(접속: 2015년 10월 28일 0시 31분)

있다.

-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 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시행
- 도박중독예방, 치유 대책의 수립, 시행(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포함)
- 과도한 사행심 유발방지를 위한 현장실태 확인 및 지도, 감독
- 불법사행산업 감시 및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관리, 운용
- 사행산업에 대해 인식전환 등을 위한 통합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sup>23)</sup>

사행산업의 폐해가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정부는 도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중독자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박문제 관리센터라는 기관을 만들었다. 이는 병 주고 약 주는 모양새이지만 나름대로 시의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책이 결코 근본적인 치유책은 될 수 없지만, 일정한 순화기능과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국도박한국도박문제 관리센터<sup>24)</sup>의 설립목적과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1. 예방·치유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

23) <http://www.ngcc.go.kr/Committee/Skill.do> 자료마당→위원회 소개→주요기능(접속: 2015년 10월 28일 0시 37분)

24) 한국도박한국도박문제 관리센터, <https://www.kcgp.or.kr/>(접속: 2015년 10월 28일 0시 46분)

3. 예방·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전문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협력
  5. 예방사업 및 중독자 치유·재활 사업 지원
  6. 예방·치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7. 정부 또는 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는 활동
- 기관성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근거를 둔 법인  
- 사감위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 2015.02.05 공공기관 지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5-3호 기타공공기관)
  - 운영재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 2에 근거하여 사행산업자가 납부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산정: 사행산업사업자의 전년도 순매출액× 0.35%  
(건전화 평가, 총량 준수 등에 따라 40% 이내에서 감경 가능)<sup>25)</sup>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이러한 정책에는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난제들이 내포되어 있다. 그 난제들을 정리하면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부의 정책 중 인구의 과도한 도시집중을 막고 지방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과도한 수도권 중심의 발전, 인구집중은 과거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첨예하게 정치적으로 반영되던 시기에는 군사 전략적 및 안보 차원에서도 수도 한강이남 이전 추진이 계획된 적이 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행정복합도시 건설계획, 정부기관 지방이전, 프로젝트

25) <https://www.kcgp.or.kr/> 기관소개→비전 및 목표→설립 근거 및 목적(접속: 2015년 10월 28일 0시 51분)

트 추진이 전개되었다. 그런데 그 어떤 해법도 효과가 없다고 판단할 정도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전 국민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주거, 고용문제 등 삶의 질 전체를 효과적으로 고양시키기란 쉽지 않으며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어느 정권도 이 심각한 문제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도시 집중 현상이다. 도시에서는 주거비를 비롯한 경비지출이 많으며, 밀도가 높은 도시 환경은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만족을 주지 못한다. 자원 산업이 개편됨에 따라 탄광 지역이 급속 몰락하게 되었지만 이를 보완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과 지원은 미미했다. 결국 석탄사업 합리화 정책 명분으로 사행산업을 반영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던 것이다. 수도권집중이라는 경제, 사회적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때 정부가 사행산업에서 손을 떼거나 재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둘째, 폐광지역 경제가 급속하게 침체 되자 사행산업을 포함한 관광자원의 적극적 유치라는 비정상적 방법을 모색했고 이를 정책에 반영했다. 태백, 정선 지역의 카지노 설치는 바로 이런 배경을 갖고 있다. 한국사회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이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으나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지는 지방으로서는 그만큼 카지노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 카지노가 세워질 때부터 이미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적 문제와 연관되면서 현재 사행산업의 규모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과거와는 달리 관광사업의 다각화와 경쟁력 강화가 여러 면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

셋째, 정부는 도박관련 문제 해결에 좀 더 다차원적인 입장을 모색해야 한다. 행정적 제도적 장치, 사회의 공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윤리적

차원의 접근, 교육적인 접근, 인식확산 등의 방안을 통하여 도박중독에 대한 예방과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윤리 차원의 프로그램인 심리치료 및 상담, 치유를 통한 피해자 돕기, 도박과 관련된 가족의 회복 프로그램 보급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고 책임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내면적 행복감의 결여와 가정의 파괴, 물질만능주의 팽배 등이 많은 사람들을 도박에 빠지게 하는 정서적 환경이기 때문이다. 사회윤리 차원에서는 중독자 치유를 위한 법제화 및 센터 등 시설지원, 사행산업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관리 감독, 설치 제한의 법제화, 실질적인 법률 운용 등에 주목하고 이와 관련된 운동과 아울러 시민단체 등과 연대 협력하는 활동도 모색해야 한다.

## 2. 맘모니즘 일소와 성실한 근로생활

기독교는 맘모니즘을 넘어서서 삶의 자세와 가치관 정립을 통해 변화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물질주의를 극복하는 문제는 단순히 정서적, 정서적 차원에서만 해결될 수는 없고 영적인 차원에 까지 연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 애매하고 막연한 과제를 풀어야하는 책임이 기독교와 교회에 주어져 있다.

초기교회의 성자 어거스틴(St. Augustinus)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보자. 그는 방탕한 길에서 떠나 어머니 모니카에게 돌아온 이후에도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다. 세속적 환상을 맘모니즘으로 향유하고 싶어 하는 강한 열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바울의 서신을 펴들고 눈길이 닿는 대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었다. 그는 이 구절을 통해 강한 영감과 충격을 받아 자신을 바르게 성찰할 수 있었고 비로소 세속의 맘모니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나는 급히 알리피우스가 앉았던 장소로 돌아가서 거기에 둔 사도 바울의 서신을 펴들고 제일 먼저 내 눈길이 닿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sup>26)</sup>

이처럼 맘모니즘을 일소할 수 있는 대안은 성경적 가르침을 바르게 정립하는 데 있다. 맘모니즘이 팽배한 현 시대에 기독교는 소비문화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에 도덕적 라이프 스타일과 정신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1960년대와 70년대 경제성장주의 사고방식이 아직도 사회 저변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그 폐해를 극복하려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만 한다. 교회까지도 소위 ‘변영신학’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사회의 희망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많은 청·장년들이 속속 교회를 떠나면서 사회가 고령화되는 것보다 교회는 훨씬 더 빠르게 ‘고령사회 공동체’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가 인간들에게 일종의 즐거움은 문화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검약과 절제의 덕이 없는 소비문화의 가속화는 소비 러시로 인해 낭비와 사치를 부추긴다. 신앙인은 가정의 능력과 사회의 조건을 함께 생각해야 하며 특히 사치를 경계해야 한다. 사치와 검소의 기준은 과거 농경사회나 신분 계급이 있던 봉건사회와는 다르겠지만 사회 정의에 따른 나눔의 정신, 자기 품위를 유지하는 정당성, 그리고 자신의 수준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자신을 본받아 규모 있는 경제생활을 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했고, 이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규모 있는 경제생활이란 어떤 것인가? 성

26) 어거스틴, 『참회록』 김중웅 역(서울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1), 215.

실하고 근면하게 일해서 자신과 노부모를 포함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감 있게 유지하며(데살로니가후서 3:6-15, 디모데전서 5:8), 자녀교육과 불의의 사고를 예비하여 저축하며(고린도후서 12:14, 디도서 3:14), 구제와 헌금에 힘쓰며(에베소서 4:28, 사도행전 20:33-35), 각종 세금의 의무를 수행하는 등(마태복음 22:21, 17:24-27, 로마서 13:1-7) 성실하게 근로생활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곧 규모 있는 경제생활이다.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타인의 도움을 받고 살거나 무책임하게 일을 쉬는 행위는 윤리를 일탈한 행태이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가정의 생계를 확보하고, 나아가 타인에게까지 유익한 것을 베풀어 줄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근로생활을 추구해야 한다.<sup>27)</sup>

나아가 이기심을 극복하고 이타심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만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의식해야 하며, 물질 때문에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자기의 물건과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웃에게 피해를 줄 권리는 없다.<sup>28)</sup> 추호라도 자만심과 유행의 노예가 되지 말고 언젠가는 모든 이와 모든 것의 주님이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자유와 책임을 성찰해야 한다.<sup>29)</sup>

### 3. 기독교적인 놀이와 여가문화 형성

교회 공동체의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는 ‘중독적인 성격 특성’ 또는 ‘중독자가 되는 사람의 유형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방면에서, 여러 이유로 약물중독에 빠지고 또 각기 다른 방법

27) 이정석, 『세속화 시대의 기독교』(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0), 129.

28) 최창무, 『윤리신학(II)』(서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01), 101-102.

29) 고린도전서 3:22-23; 10:23-24; 로마서 14:1-15:7.

으로 이를 극복해내고 있는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독에 대한 가정(假定)을 너무 넓은 범주에서 한 데 묶어 단순하게 조망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 도박과 사행산업 역시 중독이라는 관점에서 깊이 있게 조명해야 한다. 중독이나 약물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자신을 ‘중독자’라고 인정하는 것이 재활에 도움이 된다고 진솔하게 고백했다. 아울러 유의해야 할 관점이 있다. 중독자는 정신의학적 진단이 아니며 “그들이 중독자이기 때문에”라는 말은 어떤 행동의 유형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sup>30)</sup>

무규범적인 놀이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대중문화는 놀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는 자유분방한 태도로 인해 왜곡된다. 재미와 오락을 지상목표로 하는 놀이 역시 그렇다. 삶의 다른 맥락과 분리된 채 윤리성이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놀이 역시 놀이이기를 그친다.<sup>31)</sup>

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인간이 추구해야 할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할 수 있다. 대다수 인간들이 그릇된 열심과 탐닉에 빠져있다. 오늘날 나태는 “할 일이 없어 한가롭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여가와 비슷한 말로 구사되기도 하지만, 중세에는 정반대로 “여가를 누릴 수 없다”는 뜻이었다고 한다. 일에 빠져 안식이 없는, 즉 일에 몰두하는 자기 파괴적 열광주의로 인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나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존엄성과 책임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의미였다. 곧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 즉 “그 자신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 자연히 그 반대적인 모습은 생존을 위한 일상적인 부지런함이 아니라 ‘세계와 하나님과 삶의 본연적 모습을 기쁨

30) 제프리 푸트, 신성만 역, 『사랑하는 사람이 중독에 빠졌다면』(서울: 소울메이트, 2015, 57-58.

31) 신국원, 『변혁과 살롬의 대중문화론』(서울: IVP, 2006), 287.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이다.<sup>32)</sup>

'기독교(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는 기독교윤리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담론이다. 놀이는 좀 더 구체적인 관심이라고 볼 수 있다. 『호모 루덴스』의 저자 요한 호이징하(Johan Huizinga)는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보다 호모 루덴스(Homo Ludens)로서 이해했다. 즉 놀이가 문화의 한 요소가 아니라 문화 그 자체가 놀이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놀이는 문화 그 자체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일정한 크기로 존재해 왔으며, 태초부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에 이르기까지 항상 문화 현상 속에 함께 있었고 그 속에 충만해 왔음을 우리는 문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sup>33)</sup>

호이징하는 놀이의 여가가 선용되지 못하고 쾌락적인 소모로 변질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오늘의 연예는 하나의 소비되는 시간이며 일과 일 사이의 빈 시간으로, 또는 그것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이상화된 영역이 되고 있다고 보았다. 라틴어 '루두스'(ludus)는 놀이와 여가를 더한 것인데, 오늘날 연예 개념에는 지적, 심적인 관심의 영역인 '디아고게'(diagoge)가 빠져있거나 크게 약화되었거나 혹은 질적으로 저하되고 일과 대립되는 개념이 되고 말았다.<sup>34)</sup>

필자는 1935년에 발행된 『신자생활의 첩경』(信者生活의 捷徑)을 연구한 바 있다. 저자 솔타우(T. Stanly Soltau, 蘇悅道, 1890-1970)는 미국 북장로교 한국 파송 선교사로 청주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이 책의 제5장에는 신자와 오락에 대한 논의를 담았는데 오락의 유용성과 구체적인 표

32) Ibid, 291-292.

33) Johan Huizinga, 김윤수 역, 『호모 루덴스』(서울 : 도서출판 까치, 1981), 13.

34) Ibid, 298.

준을 성경에 기초하여 제시했다.

제5장 신자와 오락

오락은 신자 생활 가운데 마땅히 있을 것인데 적당한 오락은 필요한 것이며 많은 유익이 있다.

1) 기쁜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슬프고 답답한 신자는 영화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신자는 마음 가운데 소멸시킬 수 없는 기쁨이 있음으로 남의 즐거움 가운데 참석하며 다른 사람에게 더욱 기쁨을 끼칠만한 일을 할 것이다. (벧전 1장 7절, 잠언15장 13-15절, 17장 22절)

2) 테니스와 베이스볼<sup>35)</sup>과 기타 운동은 몸을 강건케 하면서 자기를 이기며 다른 사람과 합동함을 가르치는데 매우 유익하며 이러한데 참가하는 중에 주님을 증거 하는 기회를 많이 얻을 수가 있다.<sup>36)</sup>

주 5일제 근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장기적 경제 불황과 청년실업 등이 지속되면서 우리사회에 나타난 풍조 중의 하나가 취미활동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작은 것의 즐거움과 미시적인 일 가운데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런 풍조에 대해 교회 나름대로의 다양한 대응책들이 예배, 선교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렇지만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 답을 내놓아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본다.

35) 대부분의 서양 운동을 국내에 소개한 사람들은 구한말 선교사로 체육사에서도 받아들이고 있다. 대한야구협회에서는 야구의 유래를 1904년 기독교청년회(현 YMCA) 창립 공로자 중에 한 사람인 미국인 질레트(P. S. Gillet)가 청년 회원들에게 야구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한국 야구의 첫걸음이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미국인 선교사 뱅커와 제중원의 앤더슨에 의해 정식 테니스가 들어왔다고 보고 있다. 대한야구협회 홈페이지 (<http://www.korea-baseball.com>)참조.

36) 이장형, 「신자생활의 첩경을 통해 본 일제강점기 기독교인들의 윤리인식」,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29집, 2014. 08, 415-440.

#### 4. 부의 사회 환원을 위한 노력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독교는 결코 물질을 부정하거나 경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신과 물질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려고 한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입각하여 물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원적인 태도를 취한다. 우리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재산의 소유와 물질의 사용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초대교회 때부터 물질의 영역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겨난 이단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영지주의의 거두였던 마르시온(Marcion) 사상을 들 수 있다. 그는 세상과 물질과 육체를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이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표방했고 결혼까지 금지시켰을 정도였다. 경제생활 또한 하찮은 것으로 간주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영적 용어로만 이해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을 전개하였다. 영지주의의 가현설(假現說, Docetism) 또한 물질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sup>37)</sup>

우리의 재산은 공공의 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자기와 자기 가족, 그리고 그 밖의 몇몇 사람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소유자는 하나님이며 그가 사회와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도록 각 개인에게 맡기셨다. 결핍의 시대에서 풍요의 시대로 전환되면서 두드러진 현상은 개개인은 부해지고 사치하며 물질을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는 데 반해 공공사회는 가난하다는 것이다. 개인은 지나친 소비를 억제할 것과 세금을 통해서 개인의 부와 공공사회의 빈곤간의 간격을 메울 것을 요청받고 있다.<sup>38)</sup> 토마스 아퀴나스는 소유의 사용에 대해서 외적

37) F. F. Bruce, *The Spreading Flame*(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2), 251-252.

인 것들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보았다. 그는 자신의 이성과 의지에 따라서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외적인 것들에 대하여 자연적인 지배권”을 갖는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sup>39)</sup>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질을 추구함에 있어 왜곡된 흐름은 도박이다.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맘모니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를 바람직하게 사용하는 모델이 많아져야 한다. 특히 기업이 사회 전반에 끼치는 비중은 지대하다. 오늘날과 같은 기업자본주의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견실한 기업가와 기업의 모델이 절실하다. 물질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기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윤리경영, 기업윤리현장이라는 말이 이제는 친숙한 용어가 되었다.

부의 사회 환원을 거론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모델들로서 미국의 카네기(Andrew Carnegie), 워렌 버핏(Warren Buffett), 한국 유한양행 창업주 유일한 회장 등을 들 수 있다. 부의 사회환원의 롤 모델로 추앙받는 카네기는 자신이 설립한 기부재단인 카네기협회를 통하여 부의 환원을 실천했다. 그가 세운 카네기협회는 기부 시스템에도 경영학을 도입해 교육사업과 사회사업에 체계적으로 기부했다. 그 결과 미국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카네기는 “부자들은 생전에 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카네기는 부를 모으는 과정에서는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당대 최대의 자선 사업가였다.<sup>40)</sup> 워렌 버핏은

38) 고범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4), 345~346.

39) *Summa Theologica*, Q. 66. Art. 1. In EDP, Phillip Wogaman, 임성빈 옮김, 『기독교 윤리학의 역사』(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170. 재인용.

가치투자의 창시자인 벤자민 그레이엄(Benjamin Graham)의 영향을 크게 받아 가치투자<sup>41)</sup> 방식을 고수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억만장자였 으면서도 검소한 생활태도를 지녔으며 2006년에 재산의 85%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정하는 등 적극적인 기부활동을 펼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sup>42)</sup> 이 땅에 많은 기독교사업가, 자본가들이 있다. 이들이 보여준 모 범된 청지기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스스로 이 정신을 실천한다면 우리사 회의 도박, 도박중독 등의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신앙인들이 앞장서서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 청지 기의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

## V. 나가는 말

본 논문 서두에서 제기했듯이 도박이 유행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 가 아니며 바람직한 사회도 아니다. 도박 행위 자체는 다양한 파급효과를 낳는 사회 문화적 죄악이라고 간주해야 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인터넷 불법 도박시장 규모는 이미 20조원을 훌쩍 넘어서 는 규모로까지 급성장했다. 2009년도 통계에 의하면 도박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무려 78조원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 도박은 인간의 내면 에 자리 잡은 탐심에서 시작되어 팽배한 물질주의(맘모니즘)와 팽배해진 포스트모던 문화에 편승하면서 천문학적인 규모로 확대되어가는 추세이 다.

도박 및 사행산업을 지양하기 위한 대안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40) <http://cafe.naver.com/pinvestor/1852>(접속: 2015년 10월 28일 0시 31분)

41) 단기적 시세차익을 무시하고 기업의 내재가치와 성장률에 근거한 우량기업의 주식을 사 장기간 보유하는 투자.

4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76295&cid=40942&categoryId=33488>(접속: 2015년 10월 28일 0시 58분)

첫째, 정부의 시의성 있는 정책이 요청된다. 물론 이 문제를 개혁하고 관리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법제도가 있으며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과 같은 기구들도 설립되어 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인구의 과도한 도시집중을 막고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한 행정적 제도적 장치, 사회윤리적 차원의 접근, 교육적인 접근과 인식확산 등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기독교계는 신자들이 맘모니즘을 일소하고 성실하게 근로생활에 임하는 문화를 조성해갈 수 있도록 신앙을 고무시켜 주어야 한다. 맘모니즘을 극복하여 삶의 자세와 가치관에 변화를 추구해나갈 수 있도록 성경에 입각한 신앙을 정립해주어야 할 과제가 있다.

셋째, 현대는 사행산업이 확장되어가는 시대인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할 기독교적인 문화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이다. 기독교적인 놀이와 여가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무규범적인 놀이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고취시켜야 하고, 또한 동시에 『호모 루덴스』의 관점에서 문화 자체가 놀이의 성격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가야 할 과제가 있다.

넷째, 부의 사회 환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입각하여 물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사행산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산의 소유와 물질의 사용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문화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도박, 도박중독 등의 폐해는 막연하게 도덕성을 회복하려는 계몽운동 차원이나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만은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 문제이며, 인간의 내면과 연관된 문제이다. 이 폐해가 점진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기독교윤리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를 실천 하려는 의지를 확산시켜가야 한다. 이제 기독교는 윤리분야에서 공공의 핫 이슈에 동참하는 공적 윤리의 책임과 아울러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시의성 있는 대책들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의 주변이 고통, 고난, 부정의 등 무거운 주제로 얽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인간의 본성적 저변에는 '쉬고, 놀고 싶은' 기대와 욕구 또한 가득하다. 이제 교회는 이런 문제들에 이르기까지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참고문헌

- 고범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4.
-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편. 『기독교대백과사전(제4권)』. 서울: 기독교문사, 1993.
- 동아출판사사서부 편. 『새국어사전』. 서울: 동아사서출판사, 1971.
- 박애란 외. 『도박으로 인한 자살실태조사(강원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14.
- 신국원. 『변혁과 살림의 대중문화론』. 서울: IVP, 2006.
- 이장형. 「신자생활의 첨경을 통해 본 일제강점기 기독교인들의 윤리인식」.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29집, 2014. 08. 415-440.
- 이정석. 『세속화 시대의 기독교』.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0.
- 최창무. 『윤리신학(II)』. 서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01.
- 제프리 푸트, 신성만 역. 『사랑하는 사람이 중독에 빠졌다면』. 서울: 소울메이트, 2014.
- Augustine. 『참회록』. 김종웅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1.
- 『사행산업 이용실태보고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4.
- 『조선일보』. 2015년 10월 24일, 10월 27일, 10월 28일, 10월 29일.
- Bruce F. F. *The Spreading Flame*.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2.
- Huizinga, Johan. 김윤수 역. 『호모 루덴스』. 서울: 도서출판 가치, 1981.
- Schweiker, William. 문시영 역. 『책임윤리란 무엇인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Wogaman, Phillip. 임성빈 옮김. 『기독교 윤리학의 역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 <인터넷 접속>
- <http://www.kra.co.kr/>(접속: 2015년 10월 28일 0시 10분)
- <http://www.ngcc.go.kr/>(접속: 2015년 10월 28일 0시 31분)
- <http://www.ngcc.go.kr/Committee/Skill.do>(접속: 2015년 10월 28일 0시 37분)

<https://www.kcgp.or.kr/>(접속: 2015년 10월 28일 0시 46분)

<https://www.kcgp.or.kr/> 기관소개→비전 및 목표→설립 근거 및 목적(접속: 2015년 10월 28일 0시 51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76295&cid=40942&categoryId=33488>(접속: 2015년 10월 28일 0시 58분)

<http://http://www.korea-baseball.com/>(접속: 2015년 10월 28일 1시 05분)

논문투고일: 2015년 10월 31일

심사개시일: 2015년 11월 11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04일

---

 • 국 문 초 록 •
 

---

도박, 사행산업의 폐해는 막연하게 도덕성을 회복하는 계몽운동 차원이나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만은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 인간의 내면과 관련된 문제이다. 정부에서는 과도한 도시집중을 막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행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회윤리적이며 교육적인 접근과 인식 확산 등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도박의 폐해가 점진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기독교윤리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기독교는 윤리분야에서 공공의 핫 이슈에 동참하는 공적 윤리의 책임과 아울러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시의성 있는 대책들을 내놓아야 한다. 기독교계는 신자들이 맘모니즘을 일소하고 성실하게 근로생활에 임하는 문화를 조성해갈 수 있도록 신앙을 고무시켜 주어야 한다. 우리 주변이 고통, 고난, 부정의 등 무거운 주제로 얽혀 있지만, 인간 본성의 저변에는 ‘쉬고, 놀고 싶은’ 기대와 욕구 또한 가득하다. 이제 교회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화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제어:** 사행산업, 도시화, 사회적 악, 맘모니즘, 기독교윤리

---